

여야 전략 요충지 막판 총력전

민주 경남·서울·충청 유세 ... 한국당 판세 분석 회의 '비상' 평화당, 전남·북 쌍끌이... 정의당, 수도권·충남·영남 공략

여야는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당력을 총 동원, 막판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경남과 서울, 충청 등에서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당은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전략회의에 집중하면서 '막판 역전'을 노렸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대표와 지도부는 경남 진주에서 중앙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공식선거 운동에 돌입한 이후 추 대표의 경남 지원 유세는 이번이 두 번째로, 경남을 이번 선거

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막바지까지 당력을 집중한 셈이다. 추 대표는 진주에 이어 사전에서 유세를 이어갔으며, 오후엔 서울로 이동해 동작·서초·송파·광진구 등 강남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서천, 보령 등 충청지역의 격전지를 찾아 지원유세를 벌였다.

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 막바지 판세를 분석하는 회의를 열었다. 홍준표 대표는 지방 유세를 하는 대신 판세 분석 회의를 주재하며 보수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할 막판 전략 짜기에 몰두했다. 홍 대표는 "사전투표율을 보니 판을 뒤집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 민생을 판단하는 선거로, 남은 이틀 동안 민생 파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후에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를 돌며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등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박주선 공동대표가 전북 전주·군산 지역의 표심 공략을 책임졌다. 또 유승민 공동대표는 대구·경북을, 김동철 원내대표는 광주를 각각 맡아 지원유세를 벌였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전북과 전남을 나눠 도는 '쌍끌이 유세' 전략을 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조배숙 대표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었고,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남지역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충남과 서울 유세에 초점을 맞췄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유세'에 나섰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투표는 1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경남 진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와 함께 엄지를 치켜세운 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선거 후 한국당과 통합 없다"

대국민 지지호소 회견... "제 3의 길 고수"

바른미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 국민께 약속드립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대국민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3의 길'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수구세력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대해 "제대로 견제할 세력이 없는 문재인 정권은 지금 폭주하고 있다"면서 "드루킹"과 일당들을 동

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세금만능주의로 나라경제를 파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정 농단의 원흉이자 댓글 통한 여론조작의 원조로, 남북·북미회담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온 과거집착·시대착오 세력"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명분도 자격도 실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손 위원장은 "중도개혁의 제3당, 경제정당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다당제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방송3사 투표자 17만명 출구조사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KEP를 구성하는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칸타퍼블릭, 코리아리서치센터, 한국리서치 등 3개 조사기관에 의뢰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40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응답자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5번째 투표자를 등간격으로 추출해 선정한다. 조사원은 약 3200명이며 감독관은 250명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당일 오후 6시 정각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된다. /연합뉴스

6·13 선거현장

전남지사·시장·군수 후보

김영록, 전남 동·서부 횡단 지원유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11일 전남 동부와 서부를 횡단하며 막바지 지지세 확산과 접전지역 지원유세에 힘을 다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해남과 강진을 잇따라 찾아 이길운 해남군수 후보와 이승우 강진군수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시켜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오후에는 고흥, 여수, 광양 등 동부권 지역을 돌며 릴레이 지원유세를 펼쳤다. 고흥군 도양면 소록도선착장에서 열린 고흥 합동유세에서는 공영민 고흥군수 후보와,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 앞길에서는 권세도 여수시장 후보와,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앞길 유세는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 등과 함께 했다.

허석 "정부와 연합 순천 발전 이끌 것"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는 11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하나된 순천, 새로운 순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허석 후보는 이날 "상대 후보의 허위와 비방, 네거티브에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산 순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대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김태연 정책위의장, 김병관, 김진표, 박주민, 신경민, 이재정, 이종걸, 이개호, 이석형 의원 등이 찾아와 순천의 민원 해결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입는 여당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와 연계해 순천발전을 이끌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전경배 "돈 선거 구태 후보 즉각 사퇴를"



전경배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는 1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신안군수 후보들이 돈 선거로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푼 돈 몇 푼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구태 인물들을 거부하자"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신안군 섬 지역 항우 및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후보는 주민 수십명에게 항우 제공, 선거운동원 금품 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돈과 음식으로 표를 구걸하며 신안군민의 자존심을 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신안군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순호 "구례 희망 만들기" 정책 협약



김순호 더불어민주당 구례군수 후보와 (재)희망제작소는 최근 구례선거사무실에서 구례 지역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구례의 자원과 혁신으로 일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실천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협약식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 협치가 국민 화합과 혁신의 동력"이라며 "사람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김 후보는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도전적인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희망의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귀근 후보가 책임자" 장병완 지원유세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고흥군을 방문해 송귀근 고흥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과 고흥 소록도 선착장·고흥읍 등을 돌며 송 후보와 평화당 지방의원 후보 유세활동을 벌였다.

김성모, 정책자문교수위원회 정책 토론회



김성모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는 최근 함평 상상추모공원 세미나실에서 정책자문교수위원회(위원장 김길용 박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노병성 박사 진행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함평 미래 발전방향과 군정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또 나비축제와 국학대전 등 지역 축제와 농·축·수산업의 활성화 방안도 다뤄졌다.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정책자문교수위는 김길용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 4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간사에는 노병성 전 군산대 교수가 위촉됐다.

김 후보는 "교수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함평형 지역경제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길운 "해남을 경제·문화 중심지로"



이길운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는 11일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남읍을 경제·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5년간 500개 지역에 50조원을 투입하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라며 "사업지 심사·결정권이 있는 전남도와 소관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힘 있는 여당' 군수만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해남읍권에 ▲작은 영화관, 전시·공연장, 맘스카페 등이 갖춰진 문화타운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등이 결합된 에코아트타운 등 권역별로 특성화해 개발하겠다는 공약했다.

곽영체 "고향 발전 위해 4년 무보수 공약"



곽영체 민주평화당 강진군수 후보는 11일 강진읍 영랑로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황주홍 의원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지원했다.

곽 후보는 "4년 무보수 봉사 공약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면서 "고향 발전을 위한 바램이 담긴 공약이며 '사색생' 각오로 4년 타조로 출전해 만루홈런을 치겠다"고 자신했다.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군수는 실과 비늘처럼 원팀이 되어야 지역의 예산을 따올 수 있다"며 "황 의원의 예산을 따오고 곽 후보가 예산을 잘 집행하면 강진은 발전하기 때문에 곽 후보를 군수로 뽑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탄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